

NEWS Focus

광산업육성 유관기관·단체·기업체 신년간담회 개최



광산업육성과 관련한 유관기관·단체·기업체간 2002년도 신년 업무 간담회가 지난 1월 14일 본 진흥회에서 개최되었다.

광산업육성위원회 정책기획·심사평가소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광산업육성관련 유관 기관·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업무협의 등을 통해 역할분담, 상호업무중복에 따른 협의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진흥회가 광산업육성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토록 역할이 부여되었기 2002년도를 맞이하여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광관련 기업체를 포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업무협력 방안을 논의 하므로써 광산업육성과 진흥의 3차년도인 2002년도부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산업육성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월 14 본 진흥회에서 전영복 전무이사와 본 진흥회 운영위원인 이병택 교수, 신용진 교수, 정종득 기획홍보팀장과 한국광기술원 정광조 부장, ETRI광주전남센터 고재상 센터장 고등광기술연구소 노영철 선임연구원, 전남대학교 김광헌 교수, 우리로광통신 김동근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광산업육성관련 유관기관·단체 간 협조체계구축방안을 협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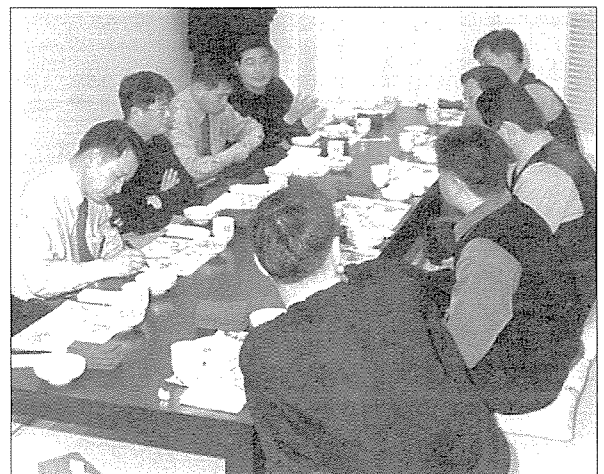
간담회개최 결과 광산업육성관련 유관기관·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이번 협의회를 최초 협의회로 하고 2002년도 제1차 정기 협의회는 오는 2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협의회 주최는 광산업육성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진흥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에 참석한 기관, 단체 외에 광주·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산업지원센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중요한 협의사항은 광산업육성정책기획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기관·단체에서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따른 타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자료는 주최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통보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2월 하순경에 개최될 광산업육성 정책기획소위원회 개최 이전에 2002년도 제 1차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관별 중요 추진사항 중 상호 연계성이 있는 내용을 협의한 후 동 소위원회에 상정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산업육성과 관련한 유관기관·단체·기업체간 협의회가 구성되므로써 앞으로 광산업 육성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조명기기용 광원으로 LED 각광

발광다이오드(LED) 기반의 차세대 조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을 밝혀 온 백열전구와 형광램프를 대신해 조그만 LED 소자가 손전등과 신호등,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을 비롯한 온갖 조명기에 들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진흥회에서도 차세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교통신호등의 국산점유율을 높이고 국내 광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진흥회는 산자부가 전국 10대 도시를 선정,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기존 백열전구 교통신호등을 저전력 LED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초청, LED 교통신호등 시연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호남고속도로 비어C 입구와 광주과학기술원 앞 사거리 등 첨단산업단지 주요 교차로 5곳에 LED 교통신호등을 시험설치하기로 했다.

LED 교통신호등은 사용전력이 기존 백열신호등의 15% 수준인 20W에 불과하고 광원수명도 반영구적으로 20년에 달하는 차세대 신호등으로 미국·유럽 등지에서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교통신호등에 필요한 청색과 백색 LED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등이 개발에 성공한 상태며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표준규격안을 마련, 연말께 의견수렴을 위해 공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한국전기교통·트래픽ITS 등의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신호등 교체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외 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업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조명용 LED는 같은 밝기의 일반전구보다 가격이 5~20배 까지 비싸지만 반영구적인 수명과 낮은 전기소모량, 외부충격에 잘 견디는 특성 덕분에 최근 특수조명 분야로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태양빛과 유사한 백색 LED가 잇따라 국산화되면서 교통신호등과 가로등, 터널등처럼 유지관리가 중요한 공공조명시설부터 LED 광원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올해

LED 기반 조명시장 규모는 6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중 교통신호등은 새해 LED 광원이 가장 빛을 발할 조명 시장으로 손꼽힌다.

LED 신호등은 백열 신호등에 비해 소비전력이 15% 수준에 불과하고 반영구적인 광원 수명을 지닌 첨단 교통시설인데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약 4만대가 연말까지 설치,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LED 신호등 표준규격을 발표한 가운데 무려 20여개 회사가 LED 신호등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과열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도로변의 가로등과 터널 안에 설치되는 터널등도 LED 광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솔라사인은 다음달 강남구청에 국내 최초로 LED 가로등을 시범 설치한다. 우영도 미국 루미레즈의 고휘도 LED를 내장한 가로등과 터널등을 상반기중 실용화한다는 목표아래 몇몇 교통조명 전문업체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들 공공조명시설은 사용환경이 혹독해 평균 3~6개월마다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데, 조명수리에 따른 민원과 유지비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주요 관공서가 반영구적인 LED 광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새해 LED 조명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용 조명시장도 백열전구 대신 LED 소자로 급속히 대체되는 상황이다. 국산 중형차 일부의 차량계기판과 실내등, 브레이크등에 LED 조명이 도입된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하반기까지 그랜저와 EF소나타, 베르나 등 전차종의 실내조명에 LED 광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전자는 연말 상용화를 목표로 전력소모량이 5배나 줄어든 LED 전조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렉스피아도 간판조명, 건물 옥상의 항공기 유도등, 등산용 랜턴을 비롯해 새로운 LED 조명 수요가 계속 터져올해 80억원의 신규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LED 광원이 조명시장에서 급격히 세력을 펼침에 따라 앞으로 5년 안에 가정과 사무실의 일반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용 특수조명 수요는 대부분 LED로 대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